

- 로고화면

S#1

화창한 날씨 보여주는 화면, 집 or 건물 바깥 화면, 흔들리는 나뭇가지 등

나레이션: '사건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죠. 한가로운 주말, 평화로운 분위기. 쇼핑몰을 운영하던 청년 피터는 갑자기 의문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S#2

쇼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아빠, 엄마, 피터. 과장되게 웃으며 즐거워한다.

잠시 후 쇼파에서 일어나는 피터.

엄마: "어디 가니 피터?"

피터: "확인할게 좀 있어서요. 신경쓰지 마세요."

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터.

S#3

과일이 든 접시를 들고 방 문을 두드리는 엄마와 아빠.

엄마: "피터. 엄마아빠 들어간다~"

[인터뷰] 엄마: "노크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의예요. 부모를 맞을 준비를 해야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간 엄마아빠는 방 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피터를 발견한다.

아빠: "오 피터!"

[인터뷰] 아빠: "오우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피터는 무식하지만 쓰러진 적 한 번 없는 튼튼한 아이였기 때문이죠."

엄마: "지저스! 피터 무슨일이니!"

노트북 화면에는 쇼핑몰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 나타난 그래프가 떠있다.

엄마: "여보 얼른 119를 불러요"

119에 전화하는 아빠.

S#4

소방차 나오는 화면.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테이프 돌아가는 화면.

아빠 나레이션: '저희 아들 피터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S#5

집으로 황급히 들어서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나레이션: '저는 우선 피터가 쓰러진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상자에서 돋보기를 꺼내는 구급대원. 돋보기를 대고 피터의 눈과 입, 귀 등 곳곳을 살펴본다.

돋보기를 내려놓고 주변을 살피는 구급대원. 노트북을 발견한다.

구급대원: "오우 설마 이거 때문인가?"

피터의 몸을 흔들며 물어보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피터! 피터! 너 혹시 쓰러진 이유가 저 쇼핑물 때문이니?"

눈을 감은채 고개를 끄덕이는 피터.

[인터뷰] 구급대원: "놀랍게도 피터가 쓰러진 이유는 쇼핑물 때문이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음... '떡락'이었죠"

엄마를 보고 다급히 상황을 설명하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어머님, 이 쇼핑물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림판으로 그린 디자인에 메모장으로 만든 상세페이지라니. 맵소사! 이건 뭐랄까...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쇼핑물이에요."

[인터뷰] 피터: "저는 솔직히 제 쇼핑물이 잘될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사고싶게 생기지 않았나요?"

피터는 노트북을 들어 쇼핑물 화면을 보여준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문구와 함께 발로 그린 듯한 디자인과 보노보노로 가득한 사이트)

CPR과 인공호흡 등을 시도하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나레이션: '피터는 좀처럼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죠.'

구급상자에서 샵바이 쇼핑물 창엽 매뉴얼을 꺼내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모두 제가 시키는대로 하세요. 샵바이로 누구보다 쉽게 쇼핑물을 바꿀겁니다."

엄마와 아빠를 가리키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어머님은 샵바이 회원가입 해주시고, 아버님은 빨리 상품을 등록해주세요!"

엄마는 휴대폰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아빠는 상품 사진을 찍는다.

피터의 몸을 흔드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피터! 피터! 일어나봐! 너의 쇼핑물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피터는 일어나서 노트북으로 쇼핑물을 확인한다.

피터: "맙소사.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거죠? 이걸 제 쇼핑물이 아니에요!"

[인터뷰] 피터: "그건 마치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피터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구급대원.

구급대원: "이걸 봐 피터. 너의 쇼핑물은 빠르고, 쉽고, 똑똑하고, 트렌디한 샵바이를 통해 새로 태어났어.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된단다."

S#6

양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발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피터. (쇼핑물이 승승장구하자 바빠진 것을 표현). 아빠는 방 한켠에서 상품 사진을 찍고 있다.

나레이션: '피터의 쇼핑물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매출은 나날이 증가했고 SNS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죠. 모든게 샵바이 덕분이었습니다.'

[인터뷰] 피터: "샵바이가 없었더라면 전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행복하게 웃으며 노트북 앞에 모여있는 엄마, 아빠, 피터. 식탁에서 과일을 먹으며 잔하는 구급대원과 가족.

장소 조건: 쇼파, TV, 거실, 방, 접시, 의자, 상황실같이 보일 수 있는 방(?), 식탁, 잔

준비물: 엄마 가발, 아빠 가발, 피터 가발, 과일, 거품 낼 수 무언가, 휴대폰, 구급상자, 노트북, 음

료수, 상품으로 쓰일만한 무언가.